

'18년 건원릉 청완 예초의(靑蘘 刈草儀) 계획

I 추진배경 및 목적

□ 건원릉 봉분 억새(靑蘘) 예초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례로써 이를 후대에 전승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 제고

- 태조 이성계의 유교(遺敎)에 따라 태조 이방원이 함흥의 흙과 억새(靑蘘)를 건원릉 사초(莎草)로 사용(건원릉지 '사초' 편 / 1631년)
- 건원릉 봉분 억새(靑蘘)는 1년에 한번 한식(寒食)날 예초(刈草) (인조실록)

□ 건원릉 청완 예초의(靑蘘 刈草儀)는 다른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된 의례로써, 지역 단체, 시민, 학생 등 참여를 유도, 지역 문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함.

- 행사 당일 건원릉 능침을 전면 개방하여, 관람객이 능침 예초부터 제향까지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제향의례에는 시민, 학생을 제관으로 직접 참여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에 대한 자긍심 및 애착심 고취

II 2018년 청완 예초의 행사계획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4. 6(금), 09:00 ~ 12:00
- 장 소 : 태조 건원릉 정자각, 봉분
 - 건원릉 능침 : 예초제
 - 건원릉 정자각 : 제향(고유제)
 - 건원릉 홍살문 : 제향 후 음복

- 참여자
 - 진행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 제향 : 문화재청 관계자, 일반시민, 학생 등
- 주요내용
 - 예초제 : 건원릉 봉분 억새(청완) 예초
 - 전통복장을 입고 낫을 이용하여 봉분 억새 예초(동부지구 5명)
 - 제향 및 음복
 - 제향의복을 입고 고유제 진행
 - 제향 후 홍살문 밖에 제향음식을 관람객들과 함께 음복
 - 청완 기념품 제공
 - 건원릉 억새를 일반관람객에게 기념으로 제공

□ 청완예초 세부 추진 계획

- 예초제 : 09:30 ~ 10:40
 - 배례위에 소장, 배례 위 뒤편에 직원 배열하여 4배
 - 소장이 건원릉 봉심을 수행(능침을 살피는 일)
 - 직원이 건원릉 봉분의 억새풀 예초
 - 발판만들기→잡초제거(참초)→청완베기(예초)→정리
 - ※ 금년도 청완식재는 4. 9 ~ 13(5일간) 청완 보식 별도 추진
- 제향 및 음복 : 11:00 ~ 12:00
 - 제향진행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 11:00~11:05 취위(봉무 위치로 나아감)
 - 11:05~11:08 진선(제물 : 탕과 면)을 올림
 - 11:08~11:18 초헌례(첫 잔을 올림)
헌작(작을 올림)-삼상향(향을 올림)-독축(축문을 읽음)
 - 11:18~11:23 아헌례(두 번째 잔을 올림)
 - 11:23~11:28 종헌례(세 번째 잔을 올림)
 - 11:28~11:30 헌작 및 사신사배(네 번 절을 올림)
 - 11:30~11:35 망료(축문을 불사름)
 - 11:35~11:40 제관 환복위
 - 11:40 예필(예를 마침)
 - 11:40~ 음복(제향 후 진설음식을 참가자와 관람객이 음복)
 - 제 관 : 관계직원 및 일반시민, 학생

□ 청완예초의 제관 명부 : 14명

祭官名	所 屬	비고
初 獻 官	구리시 경찰서장	
亞 獻 官	일반인	
終 獻 官	학 생	
贊 者	전주이씨대동종약원	
監 察	일반인	
大 祝	전주이씨대동종약원	
祝 史	전주이씨대동종약원	
齋 郎	학 생	
執 尊 者	일반인	
執 事 者	전주이씨대동종약원	
典 祀 官	전주이씨대동종약원	
陵 史	학 생	
謁 者	전주이씨대동종약원	
祭享解詁	전주이씨대동종약원	

- 건원릉 능침, 청완예초의 현장을 관람객에 개방
- 건원릉 봉분 보식용 청완 운반
- 고유제 참관 및 제수음식 음복 등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해설 프로그램 운영	
10:10	건원릉 봉분 보식용 청완 운반	현장체험학습 별도
11:00	고유제 참관	
11:40	고유제 제수음식 음복	
12:00	환경정화	현장체험학습 별도

붙임 : 관련기록 1부. 끝.

III 해설프로그램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 배경

- 청완예초의 해설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 유발을 통해 세계문화 유산 조선왕릉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청완 예초의와 태조 이야기’, ‘청완예초의 현장체험학습’
- 운영일시 : 2018. 4. 6.(금) 09:00 ~ 12:00
- 운영장소 : 동구릉 재실 ~ 건원릉 능침
- 참가대상 : 일반시민 및 학생
- 해설진행 :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박명섭(「동구릉 이야기」 저자)
- 주요내용
 - ‘청완예초의’의 유래와 이에 얽힌 조선 초기 역사 해설

관 련 기 록

□ 건원릉 봉분 역세의 이름은 북도(北道)의 청완(靑甌)

인조 7년 3월 19일자 1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太祖遺教以北道靑甌爲莎草，故至今莎草甚茂，異於他陵...”

(원래 태조의 유교(遺教)에 따라 북도(北道)의 청완(靑甌)을 사초(莎草)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른 능과는 달리 사초가 매우 무성하였습니다.)

건원릉의 봉분은 잔디를 입히는 다른 무덤과는 달리 역새로 떼를 입혔기 때문에 다른 무덤과는 달리 봉분의 사초(莎草)가 무성했다. 사초란 산소에 떼(흙을 붙여서 뿌리째 떠낸 잔디)를 입히어 잘 가다듬는 일 또는 그 떼를 말하며, 이 기록에 따르면 건원릉의 사초(莎草)는 태조의 유교(遺教)에 따라 “北道靑甌”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道”란 우리나라 동북면(東北面), 곧 함경도 지방을 말한다.

인조 7년 3월 19일자 1번째 기사 전문

仁祖 20卷, 7年(1629 己巳 / 明 崇禎(崇禎) 2年) 3月 19日(乙亥) 1번째기사

○乙亥/上晝講《書傳》于資政殿。 同經筵洪瑞鳳曰: “健元陵莎草, 無修改之時, 而今見本陵所報, 則陵前雜木着根, 漸近隨生。 太祖遺教以北道靑甌爲莎草, 故至今莎草甚茂, 異於他陵, 今聞木根如此。 昨與大臣相議, 則皆以爲: ‘木根則不可不去, 而莎草若不足, 則雖用他莎草無妨’ 云。” 上曰: “寒食拔去蓬艾時, 不拔木根, 既大之後, 乃欲盡改陵上, 甚不可也。 今若掘其土, 而斫其根, 還填其土, 則其根必自死。 自古此陵不改莎草者, 其意有在, 不可改也。”

※ 출처 :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